김우창 교수 유종호 교수 최장집 교수 오세정 교수 이승환 교수 문광훈 교수 김상환 교수

석학들, 古典 읽기로 '시대의 의미' 성찰

'문화의 안과 밖' 동서양의 주요 고전 열린 강연

7개 섹션…네이버 '열린 연단' 통해 무료 서비스

지난해 열린 강의 내용 8권의 책으로 묶어 펴내

지난해 1월 시작한 석학들의 대중강연 시리즈 '문화의 안과 밖'은 '강단 밖 인문학 열풍'을 주도한 강연시리즈였다. 특히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유종호 전 연세대 석좌교수, 이승환 고려대 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국내 내로라 하는 석학들의 강연을 접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문화의 안과 밖'이 2년차를 맞은 올해 '고전 일기'를 주제로 새롭게 문을 연다.

'문화의 안과 밖'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오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50차례에 걸쳐 '오늘의 시대와 고전' 강연을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강연 일주일 내에 네이버 '열린연단'(http : //openlectures.naver.com/)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된다.

이 강연 시리즈는 최장집 명예교수, 오세정 서울대 교수, 이승환 고려대 교수 등 7명의 운영위원이 강연 기획부터 강사 섭외와 강연 진행 등 모든 일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50회 강연으로 진행된 '문화의 안과 밖' 첫 시리즈가 우리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한 강연이었다면 올해 시작하는 '오늘의 시대와 고전' 강연 시리즈는 고전의 힘을 빌려 오늘의 의미를 성찰하는 자리다.

특히 지난해 유종호·김우창·장대인 등이 참여한 지난해 열린 강연은 민음사가 '문화의 안과 밖-예술과 삶에 대한 물음', '풍요한 빈곤의 시대-공적 영역의 위기', '동서양의 문명과 한국', '과학적 사유와 인간 이해' 등 6권으로 묶어 펴냈으며 앞으로 2권이 더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공 공간과 여론'을 주제로 진행한 '문화의 안과 밖' 강연.

올해는 모두 7개 섹션으로 진행된다.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사상의 흐름을 조감하는 '개론'(1월24일~3월14일)을 시작으로 동서양 주요 고전을 다루는 '고전시대'(3월21일~5월16일)로 강연을 이어간다. 또 셰익스피어와 주자, 퇴계와 다산 등을 살피는 '전근대'(5월23일~6월20일)를 지나 칸트와 헤겔에서 푸코와 하버마스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에 이르는 '근대정신과 비판'(7월4일~8월22일)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마르크스와 다윈, 쿤과 호킹 등 진보에 대한 관점변화와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른사상적 전개를 짚어보는 '근대사상과 과학'(8월29일~10월17일) 섹션이 진행되고, 밀란 쿤데라 등 세계 주요 언어권 작가의 대표적인 문학을 포괄하는 '근대·현대 소설'(10월24일~2015년1월9일) 섹션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김소월, 정지용, 이태준, 염상섭, 서정주 등 한국 문학사의 빛나는 작품들을 돌아보는 '한국 현대문화'(2015년1월16일~2월13일) 섹션을 통해 오늘의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강연은 고전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 텍스트가 생겨난 당대 현실과 고전이 지닌 오늘의 현대적 의미를 살핀다. 매 강연마다 주제와 관련된 교수, 박사,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강연자와 토론자로는 '문화의 안과 밖'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이남호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근대 한국의 고전), 배병삼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장자'), 임철규 연세대 명예교수(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칸트 '순수이성비판'),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다윈 '종의 기원')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우창 위원장은 "고전은 동시대가 가졌던 자리와 의미를 새로이 해석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이해될 수 있다"며 "고전은 이러한 동시대적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삶의 핵심적 사건으로서의 구체성을 얻고 오늘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의 안과 밖' 시리즈는 '열린연단' 홈페이지를 통해 강연 청중 참여 신청도 가능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최초의 동화작가 정병태 전집 출간

동화·동시·시· 등 29편 수록

영광 출신 동화 작가 정태병의 작품을 아우르는 전집(소명출판·사진)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태어난 정태병은 1939년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동화 '일남이의 그림'이 당선돼 등단했다. 정씨는 광주전남 최초의 동화작가로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나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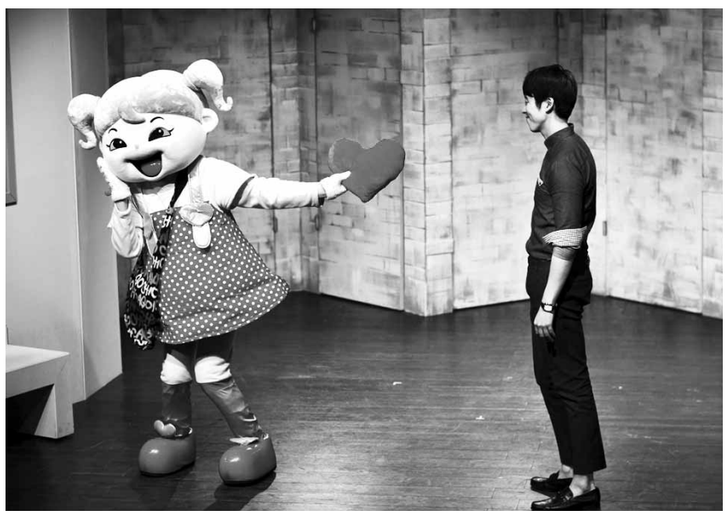
이번 전집은 아동 문학사에서 조명 받지 못한 남도지역의 작가를 정리해온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이번 전집에는 동화 20여 편과 동시, 시, 평론 등 총 29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어 정태병의 문학을 조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교수는 "정태병 작가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동문학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며 "생물학적인 존재는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문학적 성과를 집성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책 뒷부분에는 정 작가가 광복 직후인 1946년 최초로 조선의 동요를 집대성해 출판한 '조선동요전집'의 전문이 실려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그녀를 믿지 마세요"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2월 22일까지 연장 공연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상연중인 알콩달콩한 코믹 로맨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사진〉가 2월 22일까지 연장 공연에 들어간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가상의 연애상담회사를 배경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두달 동안 5000여명이 관람했다.

사랑에 빠졌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 한 마디 못하는 준희가 자신의 짝사랑 차명석에게 다가가고자 연애상담소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007 첩보작전을 연상케 하던 연애상담소의 시도는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준희 또한 사랑 앞에서 자꾸만 처음의 용기를 잃어간다. 사랑을 믿지 않는 연애상담소장 강태범은 과연 짝사랑에 빠진 김준희와 그녀의 이상형 차명석을 제대로 이어줄 수 있을까?

티켓 가격 3만원. 고속, 시외버스 승차권이나, 유·스퀘어문화관 공연 티켓을 제시하면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기업들의 성공 보고서 '동그라미에 빠진…' 출간

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기업들의 성공 보고서 '동그라미에 빠진 지역파수꾼 이야기'〈사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재단이 지난 2013년 사업공모 통해 선정, 지원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1기 기업들의 성장과정을 담은 자료집이다.

선정 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광주 틔움복지재단을 비롯해 ▲동네방네협동조합(강원도 춘천시, 춘천 원도심 활성화 기여) ▲다누리맘(경기도 수원시, 다문화 산후관리사 양성)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지역소식지 발행) ▲토닥토닥협동조합(대구시 중구, 지역주민 대상 심리상담 제공) ▲꿈꾸는씨어터(대구시 남구, 지역 문화예술 성장 촉진)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등 모두 7곳이다.

책자는 재단 홈페이지(www.thecircle.or.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02-3470-36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작은전시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여성재단이 지역 여성작가와 여성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작은전시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성재단 8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은 페인팅 에코백 만들기다. 한지희씨가 강사로 참여하며 오는 26일 오후 2~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없다.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로 팩스(062-670-0505)나 이메일(y0690@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은새암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이윤미 작가의 작품인 천연 향초를 전시한다. 문의 062-670-05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